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린에너지처 에너지사업부 정찬조부장(061-338-5371) / 제공일: 2021. 12. 15. (총 2매/사진참고2매)

농어촌公, 공공기관 유일 에너지이용효율화분야 녹색사업인증

- 지열, 해수열 등 재생에너지로 농어업의 유류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
- 탄소인지예산제도 대응과 농어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 마련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농어업분야 유류 의존형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 녹색사업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.

- 녹색사업* 인증은 정부가 저탄소·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 인증을 받은 기술의 활용성, 환경 기대효과, 정책적합성을 기준으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.

*녹색사업(대상범위) :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, 탄소저감플랜트/시스템구축사업, 첨단수자원개발처리 관리사업, 그린IT활용보급사업, 그린카선박녹색교통수단및시스템보급확산사업, 첨단그린주택 도시기반 시설 보급확산사업, 청정생산기반 구축사업, 친환경안전농수산물 공급사업,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

- 현재까지 녹색사업 인증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공사가 유일해,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정부의 탄소인지예산제도**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예산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**탄소인지예산제도 : 정부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·집행에 반영하는 제도

□ 이번에 공사가 녹색사업인증을 취득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각각 농업시설(온실, 축사 등)과 수산물 양식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화석연료 보일러를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(지열, 해수열 히트펌프 등)로 전환하는 사업이다.

- 공사는 2010년도부터 총 사업비 5,652억원을 투입해 310개 농업시설과, 1,438개 어업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왔다.
- 이는 연간 약 16.3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, 연간 15,000km를 주행하는 2,000cc 중형차 7만7천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.
- 또한, 사업대상 농어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, 난방비 절감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과,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매출 증대 등을 이유로 95%가 사업효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.
- 공사는 현재 농식품부·해수부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로드맵이 구체화 되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,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현과 농어민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내년 3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에 맞춰 농어업,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고 말했다.

참고

녹색사업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사진



화훼온실 지열 히트펌프 전경



화훼온실 내부 지열냉난방시설 전경



양식장 해수열 히트펌프 전경



양식장 냉온수 공급 전경